

특별기획전

Dong Gang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Special Exhibition

전시 기획 _ 나탈리 킹 / 박영미

Curator _ Natalie KING / PARK Youngmi

Episodes :

Australian Photography Now

호주
현대
사진

Christian THOMPSON
Destiny DEACON & Virginia FRASER
Martin SMITH
Michael COOK
Patrick POUND
Paul KNIGHT
Polixeni PAPAETROU
Polly BORLAND
Tracey MOFFAT
Trent PARKE
William YANG

에피소드

사진은 불만한 가치가 있는 것과 관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확장하는 등, 새로운 시각적 코드를 제시한다... 사진 산업의 가장 큰 성과는 사진 작품집을 통해 온세상을 우리 머릿속에 옮겨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수전 손택, <사진에 관하여>, 1977년

이 같은 사진의 탐욕에 대한 수전 손택의 예언은 21세기 사진의 보편적 성질을 예측한 것이다. <Episodes: Australian Photography Now>는 “이미지의 작품집”을 보여준다. 아들레이드 거리에서부터 퀸즈랜드의 플랜테이션 농장, 홍콩의 골목길, 빅토리아 주 시골 말리 지역의 소금 호수에 이르는 실제적 그리고 허구적 장소의 가상 세계가 그 이미지다. 12명의 호주 사진작가들은 심리학적 개념을 카메라에 담는데, 이는 드라마와 에피소드 시리즈의 형태로 표현된다.

작가들은 삽화적 서술, 사건 및 비네트를 배치하고, 다양한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불편하지만 부드럽고, 재미있으며, 영화적인 시퀀스를 묘사하고 있다. 사진으로 구성된 영화를 제작하는 것처럼, 작가들은 상연과 프레임의 역할을 강조한다. 호주 원주민인 트레이시 모팩(Tracey Moffatt), 데스티니 디콘(Destiny Deacon), 마이클 쿡(Michael Cook), 크리스찬 톰슨(Christian Thompson) 등 네 명의 작가는 관객들을 강탈과 식민지화의 세계에 맞닥뜨리게 한다.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강력한 매체로써 토착민 컨템포러리 사진의 힘과 정치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 톰슨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공연적 사진의 특징은 의상, 분장 및 극적 요소다. 톰슨은 사진에 직접 출연하여 메리로즈 호의 모형을 쥐고 있는 등 소품을 사용하여 식민지 시대의 순간들을 재현하고 재해석한다. 그는 소도구 및 장식품(꽃과 크리스털)을 사용하여 얼굴을 가림으로써 그의 페르소나를 바꾼다. ‘우리 자신을 묻다(We bury our own, 2012)’ 시리즈는 호주 피트 리버 박물관(Pitt River Museum)의 역사 사진 컬렉션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이 시리즈에서 자화상은 “영적인 송환”을 수행하는 것-의식적인 멜랑콜리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통해 소중한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지칭하며 자료를 천착한다.

폴리 볼랜드(Polly Borland)는 뮤지션인 닉 케이브(Nick Cave)를 비롯한 자신의 피사체를 라이크라 소재의 복장으로 감싼다. 인체는 변장복에 의해 뒤틀리고,

가려지고 그의 일부가 된다. 그 대상들은 가발, 동글납작한 스타킹, 늘어뜨린 의상, 부속물 그리고 번진 메이크업 뒤에 가려져 있다. 이는 분장놀이가 영망이 된 형태인 것이다. 저명한 인물 사진작가인 볼랜드는 모델에게 번진 립스틱과 천박한 싸구려 의상을 입힌다. 이를 통해 한스 벨머(Hans Bellmer) ‘인형(La Poupées)’의 에로틱한 인형과 다이앤 아버스(Diane Arbus)의 사회에서 소외되었지만 공감되는 인물의 초상을 떠오르게 한다. 볼랜드는 인체를 남근 형태로 가리고 형태를 만든다. 합성 섬유와 찢어진 팬티스타킹에 감싸진 그녀의 피사체는 일그러지며, 요란하다. 그녀는 인체를 결점투성이의 울룩불룩한 것들과 야한 원색으로 왜곡시켜 조각적 사진의 형태를 부각시킨다.

데스티니 디콘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토레스 해협 섬(Torres Strait Island) 전통 의상을 입게 한다. 연극적 상황을 연출해 인형과 소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디콘은 자신의 주변에서 영감을 얻는다. 현대 문화의 열렬한 독서광이자 소비자인 디콘은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장난스럽게 이용한다. 화려한 색감의 패턴이 있는 옷을 입고, 화려한 천을 배경으로 삼춘, 여자형제, 남자형제, 조카 및 친구를 자연스럽게 모은다. 근접 촬영을 한 ‘프리즈 프레임(Frieze frames, 2011)’에서는 퀸즈랜드 농업부가 1899년 토레스 해협의 이럽(Erub)을 촬영한 질산염 필름에서 얻은 흑백의 장면이 뒤따른다. 버지니아 프레이저(Virginia Fraser)와 함께 작업한 ‘컨택트(Contacts, 2011)’는 쿠쿠&이럽·메르(Kuku & Erub-Mer) 여성으로서 디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영화에서 묘사된 사람들은 디콘의 조상, 친척 또는 증조부모일 수 있다. 반면 멜버른 교외 현대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화려한 색감의 사진에는 유머가 녹아 있다.

폴리제니 파파페트로(Polixeni Papapetrou)는 청소년인 아들에게 찢어진 전투복을 입혀 촬영한다. 호주 풍경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는 그녀의 아들은 위장을 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과 어우러진다. 엄마가 주시하는 가운데 그는 의인화된 복장을 입고 변장한다. 파파페트로의 원래 사냥과 군인을 위해 개발된 안내인 복장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그녀의 아들을 배경에 놓음으로써 은폐와 폭로, 배경과 인물간의 긴장을 부각시킨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녀가 만든 빅토리아 주 시골 외딴 배경과 겁에 질린 듯한 고독한 캐릭터의 조합은 평원의 깊이를 표현한다.

제임스 쿡 선장이 1770년에 호주 해안에 다다랐을 때, 그는 일기에 호주 원주민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지구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그들은 우리 유럽인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쓴 바 있다. 마이클 쿡은 이러한 식민지화와 발견의 서술을 천착하여 원주민 문화의 이야기를 다시 상상하게 한다. 각각의 이미지는 탐험가의 일기에 그려진 유럽인의 식민주의적 시각에 의해 만들어진 토착민의 모습이다. 작품의 주인공인 원주민들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호주를 방문한 유럽 국가의 패션으로 치장하고 있다. 패션 사진을 찍어왔던 쿡은 이러한 캐릭터들을 당당하게 그려내 점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어 호주 사회에 남아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트렌트 파크(Trent Parke)는 아틀레이드 거리 한 구석에서 인내를 가지고 3주간 기다려 예측 불가능한 행인들의 모습을 포착했다. 거친 느낌의 흑백 사진은 행인들의 이동에 따른 유동과 증가를 압축하고 있다. 파크의 카메라 렌즈는 거리를 종종걸음으로 가고, 걷고, 돌고,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해 운동성을 가지며, 관람자들은 몰래 엿보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 생생한 메모를 곁들여 파크는 익명의 행인을 기록한다. 그의 거리 묘사는 평범한 호주 거리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풍경으로,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다. 마치 유명 옷 같은 그의 어두운 사진들은 색조의 퇴색을 보여주기 위해 확대된다. 얼굴들은 흐릿하지만 빛과 어둠의 패턴에서 그 강도가 드러난다.

트레이시 모팻은 서술의 일부로서 전경에 음산하고 어렴풋하게 보이는 실루엣과 식민지 시대 퀸즐랜드의 전형적인 집을 묘사한다. 직물짜임 모양의 종이를 손으로 착색하고 문학작품의 장치처럼 답티크를 이용하는 사진은 환상과 초자연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 같은 몽환적 이미지는 빈티지 사진을 닮아 있다. 사탕수수밭에 신비한 불길 이 타오르고 외계의 빛이 사탕수수밭 오후의 빛에 더해진다. 개리 힐버그(Gary Hillberg)와 함께 작업한 영상 작품 '다른 것(Other, 2009)'에서 모팻은 "다른 것"과의 접촉을 보여주는 영화와 텔레비전 장면들을 만들어 냈다. 요란한 사운드트랙을 가지고 있는 빠른 속도의 이 몽타주들은 욕망과 에로틱한 관계로 가득 차 있다.

윌리엄 양(William Yang)은 보는 이에게 그와 함께 중국인 및 게이 집단으로 들어갈 기회를 제공한다. 공통의 장소에 머무르게 하고 이에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양은 수 십 년 동안 그가 속한 집단을 솔직하게 기록해 왔다. 그는 친밀하지만 폭로적 성격을 띠는 시나리오에 동료들을 등장 인물로 삼았으며, 자신도 종종 등장한다. 이 시나리오에는 부드럽고 솔직하게 변화된 가족 사진, 여행 사진, 외국의 장소 및 집단 모임들이 있다. 양은 많은 작품 속에 상황과 만남을 시적으로 묘사한 글을 삽입한다. 능숙한 이야기꾼인 양은 그의 사진이 생각과 개인 경험의 저장소가 되도록 작업한다.

마틴 스미스(Martin Smith)는 홍콩 여행 사진에 일기와 같은 텍스트를 덧입힌다. 텍스트는 먼 기억의 반복 또는 경험의 재생을 통해 지워진다. 사진과 텍스트를 융합함으로써 스미스는 장소와 기억, 그리고 시간을 열어 놓는다. 작품의 제목은 부모형제 간의 가족 관계를 특히 잘 드러낸다. 텍스트는 애절한 거리에 새겨진 상실과 갈망, 생과 사의 이야기다.

폴 나이트(Paul Knight)의 사진 이미지를 접어 나눴으로써 여러 커플 사이의 은밀한 만남을 복잡하게 재구성한다. 나이트는 스티치로 사진 면을 이어놓아서 서로 다른 인체가 뒤엉키도록 한다. 커플이 침대에서 서로 껴안고 누워 있는 다정한 이미지는 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나타낸다. 나이트는 접는 방법을 통해 감정적 부분까지 잡아내지 못하는 사진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며, 사진 조작을 통해 심리학적 자세를 묘사한다.

패트릭 파운드(Patrick Pound)는 주로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들을 모아 미스터리한 시나리오를 재구성한다. 그는 이미지를 차곡차곡 모아 무리를 이룬 이상블라주

기법을 사용한다. 그는 단편적 이미지 컬렉션에 증거로써 사진을 사용하지만, 폭력이 임박했거나, 범죄가 숨어 있거나 혹은 잊어버린 이야기 같은 느낌이 있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에피소드를 통해 호주 사진 작가들은 텍스트와 찾아낸 이미지뿐 아니라 정치적이며 날카로운 서술, 풍경, 초상화적 기법을 보여준다. 이 이미지들은 영화적 반전과 변형을 통해 시각적 배열을 하고 긴장감 있는 화면을 구성한다. 다층적 내러티브는 무대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상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많은 사진작가들은 사진의 쌍둥이 격이라 할 수 있는 영화를 작업에 접목함으로써 영화적 흐름을 구성하기도 한다. 점증적으로 이 같은 작가들은 우리를 은밀한 주관성, 결정적 순간 또는 꾸며진 시나리오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 사진의 신비로운 영역을 경험하게 한다.

Episodes

In teaching us a new visual code, photographs alter and enlarge our notions of what is worth looking at and what we have a right to observe...the most grandiose result of the photographic enterprise is to give us a sense that we can hold the whole world in our heads – as an anthology of images.

Susan Sontag, *On Photography*, 1977.

Susan Sontag's prophetic account of the insatiability of photography anticipates the ubiquitous quality of photography in the 21st century. *Episodes: Australian Photography Now* uncovers "an anthology of images": an imaginary world of fictional and real places from the streets of Adelaide to a plantation in Queensland, a laneway in Hong Kong and a salt lake in the Mallee region of rural Victoria. Twelve Australian photographers flex their cameras on the notion of psychological, soap opera and serial episodes.

Deploying episodic narratives, incidents and vignettes, each artist utilises multiple frames to depict disturbing, tender, funny and cinematic sequences. Like a type of photographic filmmaking, they highlight the role of staging and framing. Four of the artists – Tracey Moffatt, Destiny Deacon, Michael Cook and Christian Thompson – are Aboriginal thereby reflecting the potency and politics of contemporary indigenous photography as a powerful medium to confront and incite the viewer into the world of dispossession and colonisation.

Costumes, disguise and theatricality are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performative photographs of Christian Thompson. Casting himself in his photographs, he re-enacts and re-interprets colonial moments with accouterments such as clutching a model of the war ship, Mary Rose. He uses props and adornment (flowers and crystals) to alter his persona, veiling his face. Produced in response to Australia's Pitt River Museum's historic photographic collection, the series *We bury our own* (2012) mines the archive while referring to self-portraiture as performing "spiritual repatriation": returning precious objects to their rightful and original owners in an act that evokes a ritualistic melancholy.

Polly Borland shrouds her subjects including musician Nick Cave in lycra attire. These bodies are contorted, veiled and subsumed by fancy dress. Her sitters disappear behind wigs, bulbous stockings, stretched

costumes, appendages, wigs, and smudged makeup. This is a form of dress-up gone awry. A renowned portrait photographer, Borland casts her sitters in tawdry outfits complete with smeared lipstick and gaudy outfits. We are reminded of Hans Bellmer's erotic dolls in *La Poupées* (1936) and Diane Arbus' portraits of marginalized yet empathetic people on the fringes of society. For Borland, the body is obscured and sculpted into contoured forms with phallic appendages. Swathed in synthetic fabric and shredded pantyhose, her characters are dysmorphic yet raucous. She distorts the body with flaws, bulges and lurid primary colours to accentuate a type of sculptural photography.

Destiny Deacon dresses up her family and friends in Torres Strait Islander costumes. Known for using a vast collection of dolls and props in theatrical settings, she takes inspiration from the world around her. A voracious reader and consumer of contemporary culture, Deacon manipulates stereotypes of race in playful ways. Wearing colourful, patterned outfits against fabric backdrops, Deacon gathers those around her in informal arrangements of uncles, sisters, brothers, nephews, nieces and friends. Closely photographed, *Frieze frames* (2011) is accompanied by black and white archival footage sourced from a nitrate film shot on Erub in the Torres Strait in 1899 by the Queens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Virginia Fraser, *Contacts* (2011) references Deacon's heritage as a Kuku & Erub/Mer woman. The people depicted in the film are likely to be Deacon's ancestors, relatives, or even great grandparents. In contrast, Deacon's coloured photographs are tinged with humour as she portrays scenes from contemporary life in suburban Melbourne.

Polixeni Papapetrou also uses dress up by casting her adolescent son in a shredded warfare costume. Posed in Australian landscapes, he is camouflaged and merges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Under his mother's watchful eye, he becomes disguised in an anthropomorphic costume. The ghillie suit was originally developed for hunting and the military but Papapetrou has carefully positioned her son within the landscape to heighten tension between concealment and revelation, landscape and portraiture. In doing so, her carefully rendered compositions reveal a depth of field populated by a haunted, lone character in isolated settings in rural Victoria.

When Captain James Cook visited Australian shores in 1770, he wrote in his journal that the Aboriginal people "may appear to some to be the most wretched people on Earth, but in reality they are far more happier than we Europeans." Michael Cook mines these narratives of colonisation and discovery to re-imagine stories of Aboriginal civilisation. Each image

is inscribed with excerpts from explorer's journals, often revealing racist encounters between Europeans and the indigenous population. His Aboriginal protagonists are dressed in the fashions of four European countries that visited Australia: Spain, the Netherlands, England and France. With a background in fashion photography, Cook poses these characters with dignity, inverting the coloniser's stereotype of "natives" to comment on the lingering racism in Australian society.

With patience and endurance, Trent Parke waited on a street corner in Adelaide for three weeks to capture the unpredictability of the passerby. His grainy, black and white portraits encapsulate the flux and swell of a crowd as pedestrians wandered past. There is a sense of movement and voyeurism as Parke's watchful lens captured people scurrying, walking, pivoting and traversing a street corner. Accompanied by a vivid diary entry, Parke records the passerby who becomes anonymous. Parke's genre of street portraiture is hauntingly beautiful as people emerge from shadows on an ordinary Australian street. Like a ghostly shroud, Parke's dark photographs are blown up to reveal a tonal drop out. Faces are obscured yet their intensity is revealed in patterns of light and darkness.

Tracey Moffatt depicts a quintessential colonial Queensland home with a silhouetted character ominously looming in the foreground as part of an incomplete narrative. The role of fantasy and the paranormal are heightened through her manipulation of the photographic medium by hand-tinting textured paper and the use of diptychs like chapters from literature. These dreamlike images resemble vintage photographs. A mysterious fire is ablaze in a sugar cane plantation while alien lights add to the afternoon glare. In the video *Other* (2009), Moffatt has collaborated with Gary Hillberg to produce a riff of scenes from films and television of contact with "the other". Accompanied by a tumultuous soundtrack, this fast paced montage is full of desire and erotic liaisons.

William Yang returns us to the self, his Chinese and gay community to elicit a sense of place and belonging. Yang has been candidly documenting his community for decades, often inserting himself alongside his peers in intimate and revealing scenarios. Here are family portraits, travel images, foreign places and communal gatherings that are inflected with tenderness and honesty. Yang inscribes many of his portraits with a textual overlay, poetically describing situations and encounters. A consummate storyteller, Yang's narratives unfold so that photography becomes a personal repository of thoughts and private experiences.

Martin Smith overlays diaristic texts with touristic images of Hong Kong. The text is obliterated through repetition like a distant memory

or reliving of experiences. By conflating photography and written text, Smith uncovers place, memory and time. His titles are especially revealing of familial relationships between siblings and parents. The text narrates stories of loss and longing, birth and death, inscribed across doleful streets.

Paul Knight's intimate encounters between various couples are complicated by the bifurcation of each photographic image with a fold. Knight splices the photographic plane with stitching so that different bodies are intertwined. These tender images of couples embracing and lying in bed reveal the complexities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 folded intervention seeks to draw attention to the possible inability of a photograph to capture emotional space, whilst also simultaneously depicting that psychological posture within the manipulation to the photographic picture field.

Patrick Pound obsessively amasses found photographs often sourced from the Internet and reconfigured into mysterious scenarios. He assiduously gathers and collates images that are recreated into clustered assemblages. The notion of photography as evidence is used in his collection of snapshots but we are not sure exactly what we are witnessing as there is a sense of pending violence, a hidden crime or forgotten tale.

Through the episodic, these Australian photographers offer glimpses of political and poignant narratives, landscape and portraiture scenes as well as the use of text and found images. Images are configured in taut and visual arrangements with filmic twists, turns and tribulations. Whether staged or documentary, multi-layered narratives unfold sometimes extended into the realm of video. Many of the artists adopt a cinematic flow by linking photography with its twin, film. Cumulatively, these artists take us into the realm of intimate subjectivities, decisive moments or fabricated scenarios ensuring the mysterious multiplicity of photography.

호주현대사진전

사회를 형성하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정복과 통합, 독립과 이주를 통해 끊임없이 세계의 지도를 바꾸어왔다. 이러한 변동이 부드럽고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진행된 사례도 없지 않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커다란 역사적 변화는 전쟁이나 혁명 혹은 대립이라는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근대 서양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은 현재의 세계지도를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물리적 거리에 대한 시간적 압축은 자연스럽게 사회, 국가 간의 교류와 간섭을 부추겼고, 좀 더 빠르고 편리한 공통적인 삶의 방식을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게 했다.

지금에 와서 지구촌 거의 모든 지역이 서구 근대의 영향을 크고 작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다수가 각자의 역사에 기반하는 자신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교통시스템과 도시의 하드웨어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에는 그들만의 고유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대부분 각자의 역사적 배경에 기반하고 있다. 비록 서양으로부터 넘어온 이념이나 체제가 국가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지키고 발전시킨 깊은 문화의 뿌리를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했던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범세계적 문화와 고유의 정체성 사이에 있는 긴장감은 제 삼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차별적이지 공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동강국제사진제의 주빈국으로 초대된 호주는 토착민과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다. 50,000여 년 전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했던 호주는 그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타 문화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곳곳에 부락을 이룬 원주민들은 자연에 가까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에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이 땅은 18세기 중반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이끄는 탐험대가 주둔하고 전략적 목적으로 죄수와 영국인들을 이주시키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났던 자유 이주민들은 1851년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극적으로 증가하였고, 세계대전 참전과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호주에는 늘 인종 대립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존재했다. 오랜 기간 동안 내외적 갈등의 원인이었던 이 특징들은 현대 호주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영감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 전시에 참여한 원주민 아티스트인 데스티니 디콘(Destiny Deacon)과 그의 오랜 동료 버지니아 프래저(Virginia Fraser)는 호주 원주민 사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오랜 역사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 마이클 쿡(Michael Cook)의 작품들은 명확하게 호주의 근대를 겨냥하고 있다. 한 인물을 등장시켜 연출한 그의 사진들은 호주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혼혈인 작가 스스로의 정체성이 숨어 있다. 또 다른 정착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윌리엄 양(William Yang)의 작품들은 중국계 이주민이면서 동성애자인 작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트레이시 모팻(Tracey Moffatt)은 오래전 식민지 지역의 풍경인 것 같은 이미지를 선보인다. 사진적 방법을 통해 그가 만들어낸 가상의 시간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크리스찬 톰슨(Christian Thompson)은 과거 전사들이 보석을 인간의 몸 안에 넣는 주술적 행위로부터 받은 영감을 사진이라는 예술적 행위로 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예술 행위의 개념과 한계를 넘어서 보다 높은 영역으로 들어서는 인간의 염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작가들이 호주의 과거에 기반하고 있다면 세계 곳곳에서 찾아낸 사진 이미지들을 새롭게 조합함으로써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내고 있는 패트릭 파운드(Patrick Pound)를 비롯한 이들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현대 호주 문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마틴 스미스(Martin Smith)는 텍스트와 사진 이미지를 독특한 방식으로 혼합하는 자신만의 시각 언어를 보여주고 있으며 폴 나이트(Paul Knight)의 접혀진 사진들은 사진의 매체적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동시에 정신적 영역의 소통을 시도한다. 폴리제니 파파페트로(Polixeni Papapetrou)는 자신의 청소년기 아들이 위장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소년기와 성인 사이의 정체성에 대한 답문을 기념비적 형상으로 드러내고 있고, 폴리 볼란드(Polly Borland)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기묘한 창조물을 만들어냄으로써 획일화된 미적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호주 아델레이드 도심의 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균중을 촬영한 트렌트 파크(Trent Parke)는 거친 이미지를 통해 정체성의 혼란과 대도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시된다. 새롭고 편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추구해야 하지만 고유의 전통을 지키는 것 역시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때문에 각국은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자국 문화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급격히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은 문화의 전이를 가속화 시켰고 세계적 문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는 여러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다분하지만 정보의 세계화가 각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하나의 획일적 가치관이나 집단적 편견을 생성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물론 인간의 삶에 일률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편리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위험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주도적 흐름에 대한 끊임없는 재검토와 비판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 예술은 이러한 역할이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영역이다. 예술이

장식과 재현이라는 기능적 차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그 위상은 소위
전위적, 혹은 주변적 위치에 존재했다. 이와 동시에 예술가들은 반항적이며
비판적이 되었고 이는 예술이 더 이상 표면적 아름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의 진리에 천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모더니즘
이후 다양한 측면의 미적 가치가 중시되면서 개인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로 담론을 형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은 이제 예술의
역할이 우리 삶과 문화에 다양한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호주의 사진가들은 선조들이 지나온 길과 그 현재의 삶에 의존하여 각자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과거 이민 역사에 대한 재인식,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다채로운 시각이 여러 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문화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국가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각 국가 간의 예술적
교류는 문화를 또 다른 패권 다툼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인 것이다.

60년을 향해 가는 수교 국가로, 또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호주는 오랜
우방국이다. 또한 교역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 동반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호주인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한 경험이 아니고, 호주
주요 도시의 중심부에서 우리말과 문화를 마주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교환
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등 새로운 형태의 인적 교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동강국제사진제의 이 전시가 남반구에 위치한 빼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영어권 나라라는 호주에 대한 피상적인 이미지를 넘어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ince they began to form societies, humans have tirelessly changed
the world map through conquest and integration, independence and
migration. Though there have been cases of such change taking place
through peaceful dialogue, it is a fact that regardless of East, West, past
or present, most significant historical changes happened through the
physical process of war, revolution or confrontation. Particularly, the
passion of the modern West toward a new world greatly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global map today. The travel advancements have made
the physical distances seem shorter. This naturally promoted exchange
and intervention among societies and nations, and enabled faster and
more convenient ways of life to take root throughout the world.

Today, almost every segment of the global village is influenced, more
or less, by the modern Western world. Nevertheless, w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most of these segments have formed their own
unique culture based on their histories. While we encounter similar
transportation systems and urban infrastructure wherever we go, unique
identity exists deep down in people's actual lives. Such characteristics are
based on each people group's historical background. Even if ideologies
and systems from the West were established as the new order of a
nation, they would not be able to change all at once as the deep roots
of culture are sustained and develop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tension between exterior global culture and native identity is a common
characteristic of almost every Third World country.

This year's guest of honor of the Dong Gang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is a multiracial country, where migrants from diverse countries
live together with the indigenous people. Australia has been inhabited
by humans for more than 50,000 years, but its interaction with
other cultures was limited due to its geopolitical nature. Therefore,
the indigenous people were living close to nature, forming villages
throughout the land. This land, which was first known to the
Netherlands in the early 17th century, met a new era after English
Captain James Cook and his expedition arrived, and prisoners and
other British people were later brought there for strategic reasons.
The free migrant population, which had been gradually increasing,
saw a dramatic increase when gold was discovered in 1851. After
that, Australia participated in the World Wars and achieved political

independence. In this historical process, there have always been issues of racial confrontation and confusions of cultural identity. Such issues, which have been the cause of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 for a long period of time, have also served as an important source of inspiration for contemporary Australian artists.

In the exhibition, Aboriginal artist Destiny Deacon and her colleague Virginia Fraser invite us into ancient history through their stories about the indigenous people of Australia. Meanwhile, the works of Michael Cook are clearly contextualized in the modern times of Australia. These photographs, in which narratives are made with a figure appearing in staged scenes, show various incidents in the modern history of Australia. Hidden behind the works, however, is the identity of the artist, who comes from an indigenous background. In the works of William Yang, another kind of culture of settlement can be witnessed, as they talk about the life of the artist, who is a Chinese migrant, and also gay. Tracey Moffatt presents images that resemble the landscapes of old colonies. The virtual time created through photographic methodology stimulates spectators' imaginations. Christian Thompson reenacts the inspiration he received from the incantatory act of former warriors placing jewels in people's bodies, through the artistic act of photography. Through this he attempts to demonstrate the desire of humans to transcend the concepts and limitations of art and enter a higher realm. While the artists mentioned above investigate Australia's past, some artists show the cultural trends of contemporary Australia through diverse forms, for example, Patrick Pound, who creates completely new narratives by combining photographic images found throughout the world in a new way. Martin Smith demonstrates a unique visual language by combining text and photographic images in a peculiar manner, and Paul Knight's folded photographs question the identity of photography as a medium, while attempting communication at a spiritual level. By photographing her teenage son wearing camouflage costumes, Polixeni Papapetrou reveals a discourse on the identity between childhood and adulthood in monumental images, and Polly Borland uses diverse materials to make strange creations, thus questioning uniform aesthetic viewpoints. Trent Parke repeatedly photographed crowds of people at a particular location in downtown Adelaide, Australia. Through his rough images he speaks of the confusion of identity and life in the metropolis.

In today's society, many facets of culture are considered important. While we strive to make a new and convenient society, protecting original traditions holds even greater importance. That is why each country makes many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its culture, while

trying not to adopt global trends.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accelerated the transition of culture, and made an environment where global common ground can be formed. There are many positive aspects to this in various dimensions, but still we must think about how globalization of information may affect the cultural identity of each society, and consider that in some cases a unified value system or collective bias may be created.

Of course, having a uniform criterion for human life can be convenient in individual or social aspects. But at the same time, this also comes with significant risks, so we must always re-examine the mainstream flow and maintain a critical viewpoint. Contemporary art is a domain where such roles are played actively. As art became free from functional dimensions such as decoration and representation, it entered a so-called avant-garde or marginal phase. Artists became rebellious and critical, which meant that art no longer remained at the level of superficial beauty, but was pursuing truth in many dimensions. Moreover, as diverse aspects of aesthetic value have become important since modernism, notably many artists formed discourses with their own artistic language based on their personal views of society, thus suggesting that now art plays the role of proposing diverse directions for our lives and culture.

The Australian photographers have created each of their stories, based on the paths taken by their ancestors and their present lives. New perceptions of the previous history of migration, and diverse views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where various peoples live in harmony, reveal themselves in various forms. Such artistic attempts to achieve cultural balance and harmony are not limited to the responsibility of a state. Artistic exchange between countries is another kind of effort to ensure culture is a process of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not another hegemony.

As a country with almost 6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and an ally that fought in the Korean War, Australia is an old friend. It is also an important economic partner with a rapid increase in mutual trade. It is no longer surprising to meet an Australian in Korea, and it is not difficult to encounte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the centers of major cities in Australia. New methods of human exchange, such as exchange students or working holiday programs, are also on the increase. It is our expectation that this exhibition at the Dong Gang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will go beyond presenting superficial images of Australia, that it is an English-speaking country in the Southern hemisphere with an outstanding natural environment, but will serve as a further step towards true cultural exchange,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based on a deeper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culture.



Desert melon, 2012 from the series
We bury our own, 2012
100 × 100 cm, type C photograph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lery Gabrielle Pizzi,
Melbourne



Invaded dreams, 2012 from the series
We bury our own, 2012
100 × 100 cm, type C photograph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lery Gabrielle Pizzi,
Melbourne



Down under world, 2012 from the series
We bury our own, 2012
100 × 100 cm, type C photograph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lery Gabrielle Pizzi,
Melbourne



Forgiveness of land, 2012 from the series
We bury our own, 2012
100 × 100 cm, type C photograph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lery Gabrielle Pizzi,
Melbourne



Destiny Deacon and Virginia Fraser
Contacts, 2011 (still), 2:46 minutes,
digital video projection, black&white, silent

From a black&white nitrate film by Henry W. Mobsby for the Queens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1899 on Erub, Torres Strait, *Darnley Islanders pay tribute to Hon. J.F.G. Foxton*. Original footage held in the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Canberra
Courtesy of the artists and Roslyn Oxley9 Gallery, Sydney



Destiny Deacon
Cousins, 2011 from the series *Frieze frames*, 2011
70 × 36.8 cm, inkjet print on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slyn Oxley9 Gallery, Sydney



Destiny Deacon
Melbourne girls in their Marys, 2011 from the series *Frieze frames*, 2011
80 × 94 cm, inkjet print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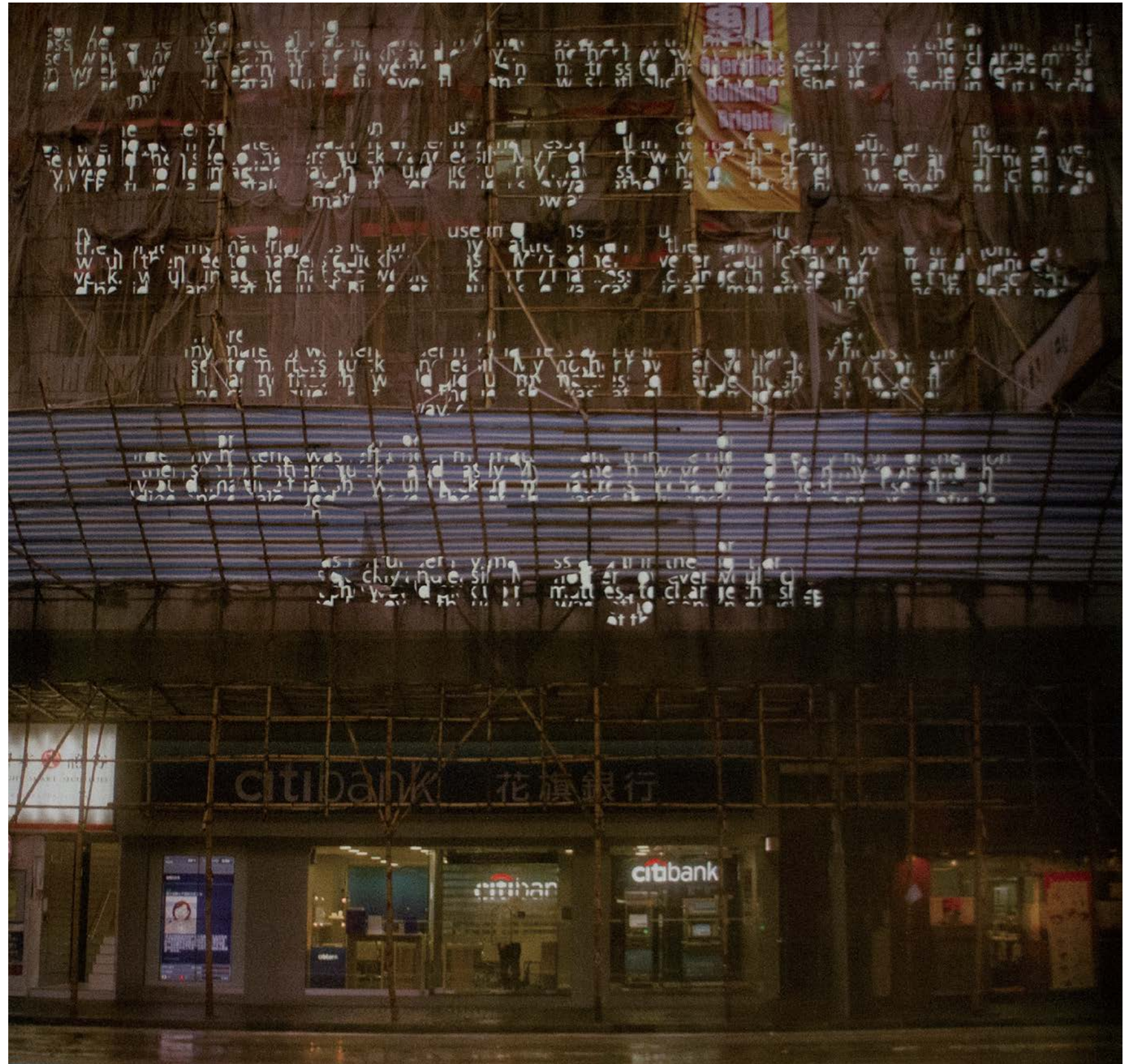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slyn Oxley9 Gallery, Sydney



Destiny Deacon
Where the boys are, 2011 from the series *Frieze frames*, 2011
80 × 99 cm, inkjet print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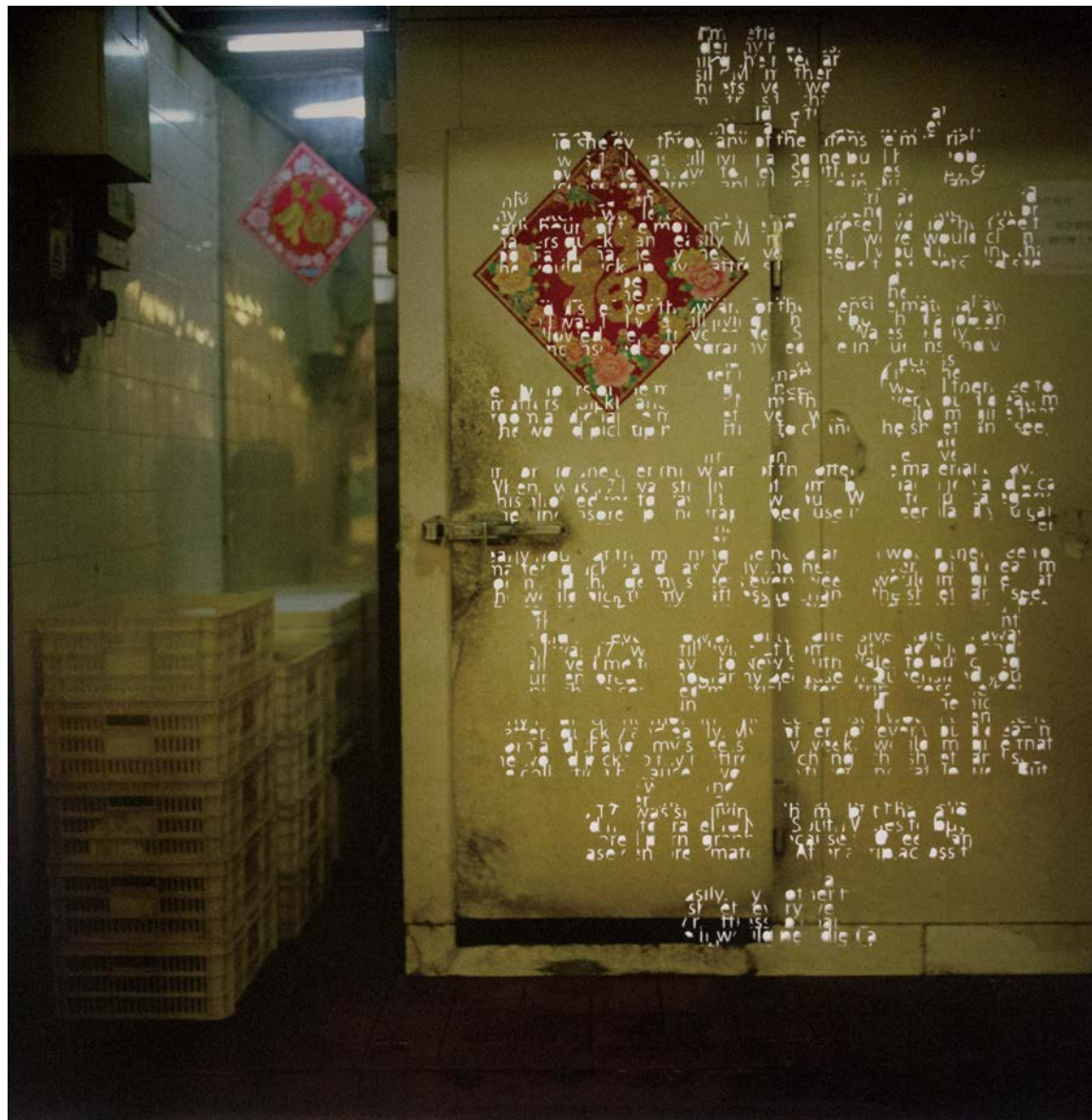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slyn Oxley9 Gallery, Sydney

마틴 스미스
Martin SM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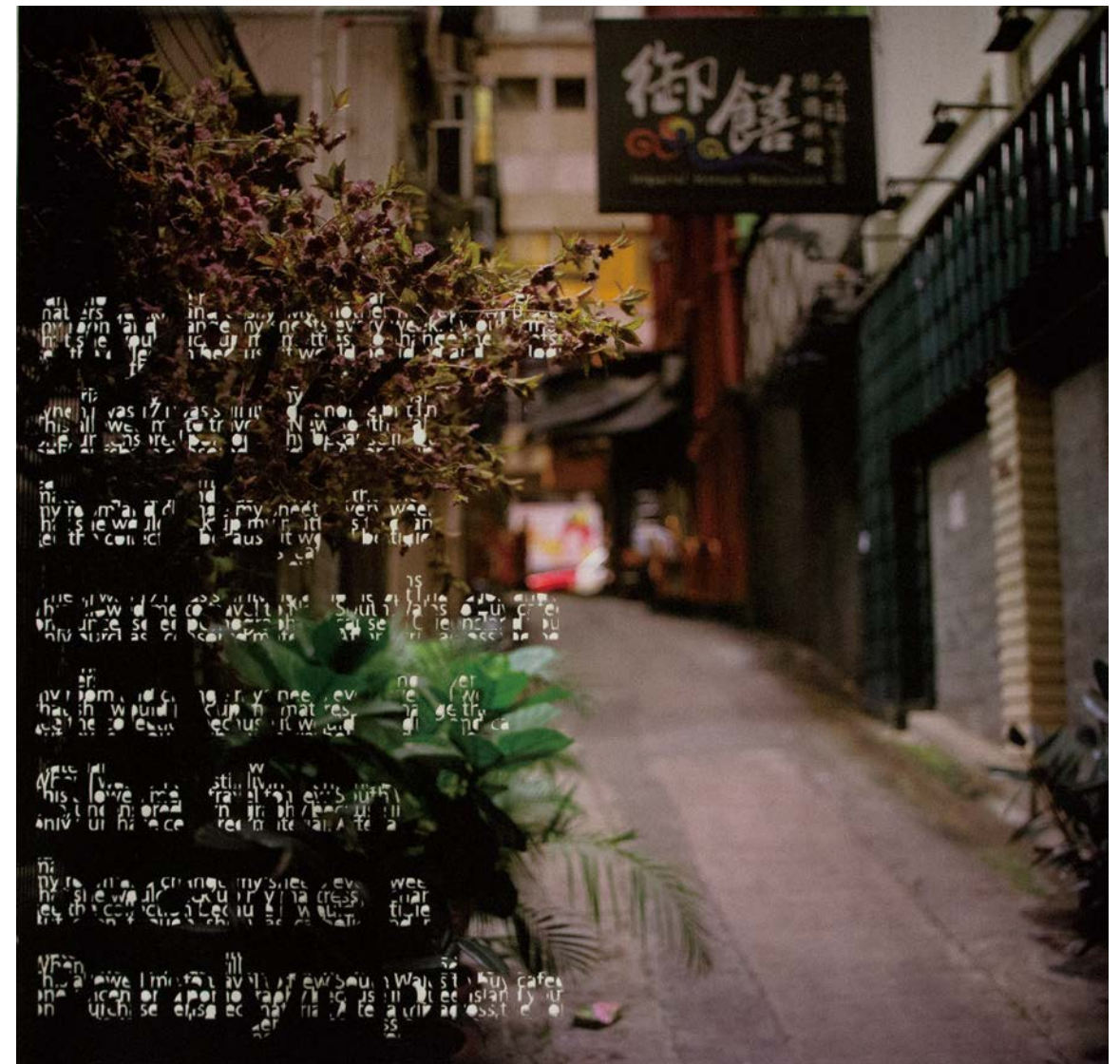
Father's mother, 2012 from the series *Brother's sister's brother*, 2012
100 × 100 cm, pigment print on photo rag with released letters

Courtesy of the artist, Sophie Gannon Gallery,
Melbourne and Ryan Renshaw Gallery, Brisbane



Mother's father, 2012 from the series *Brother's sister's brother*, 2012
100 x 100 cm, pigment print on photo rag with released letters

Courtesy of the artist, Sophie Gannon Gallery,
Melbourne and Ryan Renshaw Gallery, Brisbane



Brother's sister, 2012 from the series *Brother's sister's brother*, 2012
100 x 100 cm, pigment print on photo rag with released letters

Courtesy of the artist, Sophie Gannon Gallery,
Melbourne and Ryan Renshaw Gallery, Brisbane



Civilised #2, 2012 from the series *Civilised*, 2012
100 × 87.5 cm, inkjet print on archival Hahnemuhle cotton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Andrew Baker Art Dealer, Brisbane
Private collection, Queensland, Australia



Civilised #4, 2012 from the series *Civilised*, 2012
100 × 87.5 cm, inkjet print on archival Hahnemuhle cotton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Andrew Baker Art Dealer, Brisbane
Private collection, Queensland, Australia



Civilised #11, 2012 from the series *Civilised*, 2012
100 × 87.5 cm, inkjet print on archival Hahnemuhle cotton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Andrew Baker Art Dealer, Brisbane
Private collection, Queensland, Australia



Civilised #13, 2012 from the series *Civilised*, 2012
100 × 87.5 cm, inkjet print on archival Hahnemuhle cotton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Andrew Baker Art Dealer, Brisbane
Private collection, Queensland, Australia



Untitled (writers' meeting) detail,
2014 from the series *Untitled (writers' meeting)*, 2014,
dimensions variable, found photographs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ills Gallery, Sydney



Untitled (writers' meeting) detail,
2014 from the series *Untitled (writers' meeting)*, 2014,
dimensions variable, found photographs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ills Gallery, Sydney



Untitled (writers' meeting) detail,
2014 from the series *Untitled (writers' meeting)*, 2014,
dimensions variable, found photographs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ills Gallery, Sydney



Untitled (writers' meeting) detail,
2014 from the series *Untitled (writers' meeting)*, 2014,
dimensions variable, found photographs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ills Gallery, Sydney



Untitled, 2010
85 × 90 cm, folded type C photograph

Courtesy of the artist and Neon Parc, Melbourne



Untitled, 2010,
80 × 92 cm, folded type C photograph

Courtesy of the artist and Neon Parc, Melbourne



Untitled, 2010, 81 × 91 cm,
folded type C photograph

Courtesy of the artist and Neon Parc, Melbourne



Untitled, 2010, 83 × 87 cm,
folded type C photograph

Courtesy of the artist and Neon Parc, Melbourne



Grasstree man, 2013 from the series *The Ghillies*, 2013
120 × 120 cm, pigment ink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Stills Gallery, Sydney and Jenkins Johnson
Gallery, New York



Hattah man and Hattah woman, 2013 from the series *The Ghillies*, 2013
120 × 120 cm, pigment ink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Stills Gallery, Sydney and Jenkins Johnson
Gallery, New York



Magma man, 2013 from the series *The Ghillies*, 2013
120 × 120 cm, pigment ink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Stills Gallery, Sydney and Jenkins Johnson
Gallery, New York



Salt man, 2013 from the series *The Ghillies*, 2013
120 × 120 cm, pigment ink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Stills Gallery, Sydney and Jenkins Johnson
Gallery, New York



Untitled XV, 2010 from the series *Smudge*, 2010
76 × 65 cm, chromogenic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and Murray White Room, Melbourne



Untitled XVII, 2010 from the series *Smudge*, 2010
76 × 65 cm, chromogenic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and Murray White Room, Melbourne



Untitled V, 2010 from the series *Smudge*, 2010
76 × 65 cm, chromogenic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and Murray White Room, Melbourne



Untitled XXII, 2010 from the series *Smudge*, 2010
76 × 65 cm, chromogenic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and Murray White Room, Melbourne



Plantation (Diptych No. 1), 2009 from the series *Plantation*, 2009
46 × 50.5 cm (each), digital print with archival pigments, InkAid,
watercolour paint and archival glue on handmade Chautara Lokta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slyn Oxley9 Gallery, Sydney



Plantation (Diptych No. 2), 2009 from the series *Plantation*, 2009
46 × 50.5 cm (each), digital print with archival pigments, InkAid,
watercolour paint and archival glue on handmade Chautara Lokta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slyn Oxley9 Gallery, Sydney



Plantation (Dipych No. 11), 2009 from the series *Plantation*, 2009
46 × 50.5 cm (each), digital print with archival pigments, InkAid,
watercolour paint and archival glue on handmade Chautara Lokta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slyn Oxley9 Gallery, Sydney



Other, 2009 (collaboration with Gary Hillberg) (still)
7 minutes, DVD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slyn Oxley9 Gallery, Sydney



No. 310 *Candid portrait of a woman on a street corner. Adelaide, 2013*
from the series *The Camera is God (street portrait series)*, 2013
80 × 60 cm, pigment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MAGNUM Photos, Stills Gallery, Sydney and
Hugo Michell Gallery, Adela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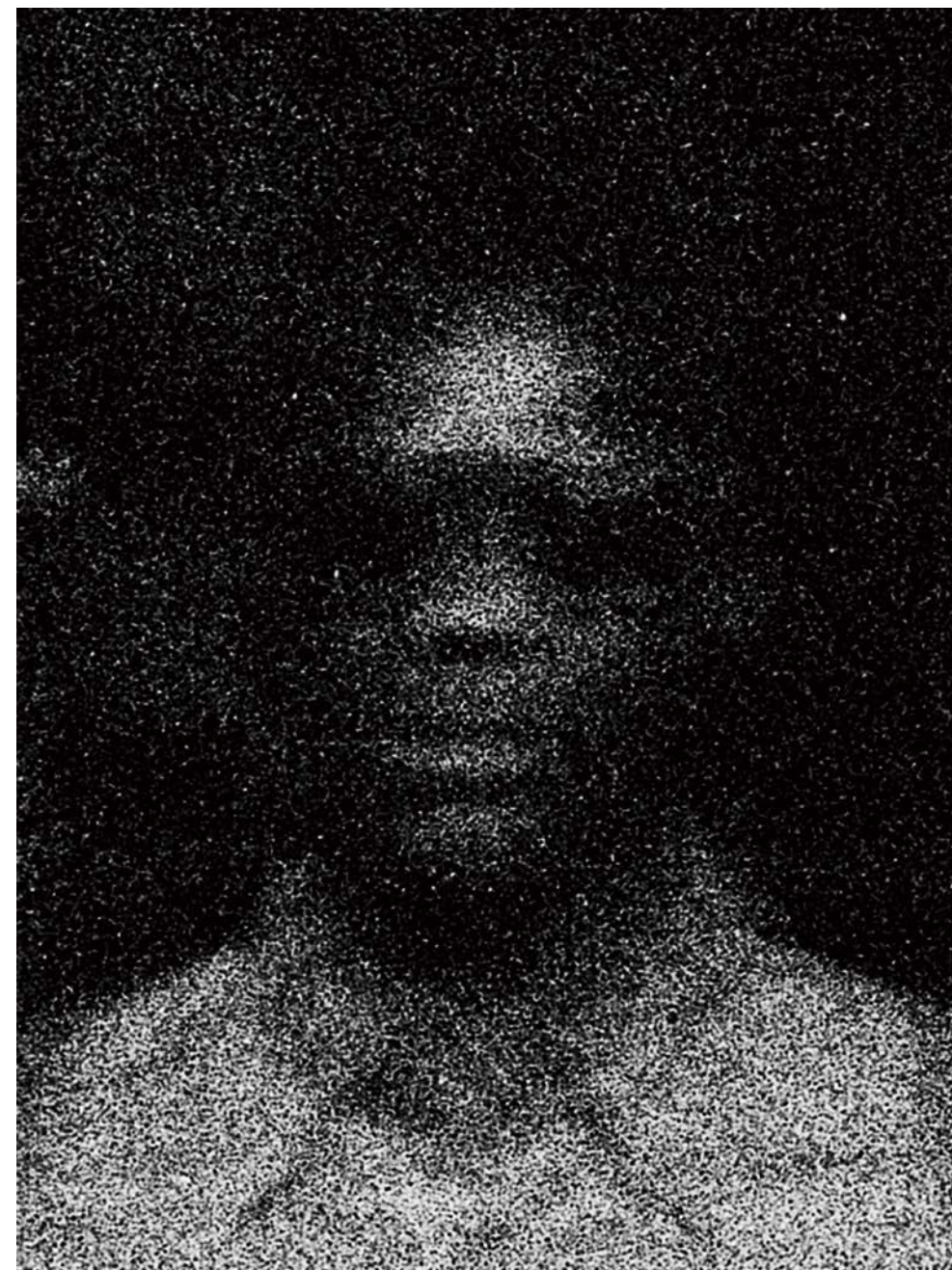
No. 125 *Candid portrait of a man on a street corner. Adelaide, 2013*
from the series *The Camera is God (street portrait series)*, 2013
80 × 60 cm, pigment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MAGNUM Photos, Stills Gallery, Sydney and
Hugo Michell Gallery, Adela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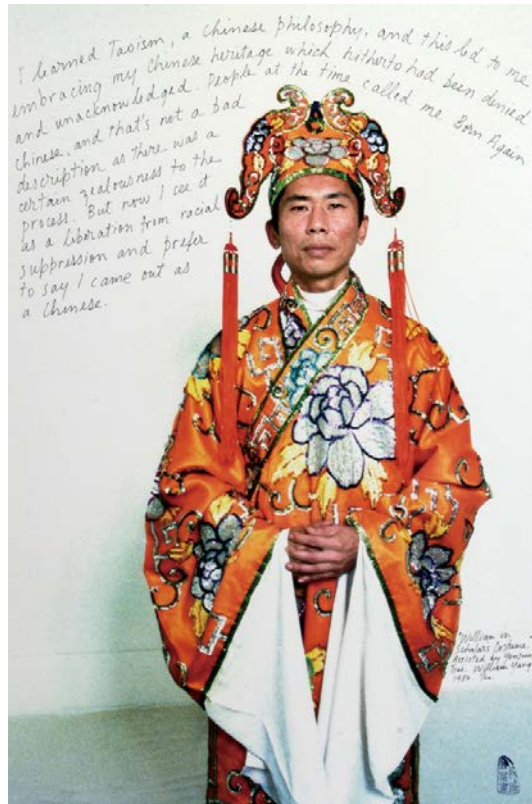
No. 522 *Candid portrait of a woman on a street corner. Adelaide, 2013*
from the series *The Camera is God (street portrait series)*, 2013
80 × 60 cm, pigment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MAGNUM Photos, Stills Gallery, Sydney and
Hugo Michell Gallery, Adelaide



No. 893 *Candid portrait of a man on a street corner. Adelaide, 2013*
from the series *The Camera is God (street portrait series)*, 2013
80 × 60 cm, pigment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MAGNUM Photos, Stills Gallery, Sydney and
Hugo Michell Gallery, Adelaide



William in scholar's costume, 1984/2007
79 × 52 cm, inkjet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ills Gallery, Sydney



Self portrait #3, 1948/2007
59 × 42 cm, inkjet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ills Gallery, Sydney



The disguise, Beijing, 1989
40 × 26 cm, inkjet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ills Gallery, Sydney



Family album, 2009 (eggs printed by Aaron Seeto)
27 × 40 cm, inkjet print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ills Gallery, Sydney

작가노트 / 약력



크리스찬 톰슨

Christian THOMPSON

수년 전에 몇몇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젊은 전사들이 행하는 의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관절이 드러날 정도로 살갓을 베고 뼈와 뼈 사이에 보석을 넣어 창조주의 정신을 모방하려는 목적 의식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전염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 처절한 고통을 참아냈으며 결국엔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었다. 극한의 고통과 치명적인 아름다움의 융화를 보여주는데 이 이야기는 수년간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것은 창조주의 정신을 담아내려는 의식이었다. 즉 신들에게 우리의 정신을 바치고 스스로 극심하고 퇴폐적인 고문을 가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육신을 초월하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이 이번 작품 시리즈를 작업하는 내내 영향을 주었다. 정신을 다시 대지로 돌려 놓는 것, 예술이 그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할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육신에 충실하기보다 숭고한 공간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그것이다.

크리스찬 톰슨은 1978년 남부 호주의 골러(Gawler)에서 태어났다. 서던퀸즐랜드대학교 시각예술(순수예술) 학사, 로얄멜버른공과대학교 순수예술 학사(우수학사) 및 석사, 암스테르담 예술대학 연극학 석사를 취득했다. 톰슨은 사진가이자 개념예술가, 행위예술가이며, 정체성과 문화적 혼종성, 역사와 같은 주제를 탐구하는 신세대 호주 토착 예술가에게 영향을 주었다. 찰리 퍼킨스 장학생이자 옥스퍼드대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에보리진 예술가이며, 그곳에서 그는 트리니티 대학 철학 박사(순수미술) 학위를 취득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예술학교인 다스아츠(Dasarts),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미래예술연구소, 영국 블라스트 써어리(Blast Theory), 미국 그린 스트리트 스튜디오(Greene Street Studio), 캐나다 풍드리 달링 스튜디오(Fonderie Darling Studio)에서 전속 작가로 활동했다. 톰슨의 작품은 호주국립미술관, 빅토리아국립미술관, 뉴사우스웨일스주립미술관, 네덜란드에보리진미술관, 영국피트리버스박물관, 독일페터클라인컬렉션, 프랑스마크 소르델로와 프란시스미사나컬렉션, 미국과그녀오웬컬렉션 등에 소장되었다.

데스티니 티콘&버지니아 프래저

Destiny DEACON and Virginia FRASER

어머니는 종종 토레스 해협 의 문화와 이럽(Erub)에서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녀는 학교를 좋아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본토에 위치한 호프베일(Hopevale)로 대피했다. 어머니는 지식과 역사, 문화에 박식했으며 정부와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와 생김새가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멜버른 교외에서 자랐다. 주변에서 침을 뱉고 돌을 던졌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 인종 차별을 겪었던 것이다. 우리는 미키마우스를 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뛰노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부족, 시골 및 도시 출신의 에보리진들, 아프리카인들, 폴리네시아인들, 가난한 백인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토레스 해협에서 온 방문객들이 한데 모여 살았던

곳에서 성장했다. 이들은 모두 억압받는 타자이지만 깨어 있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웃고, 싸우며, 음악과 정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다. 나는 엄마가 메리(Mary)라고 부르는 토레스 해협식 드레스를 몇 벌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좋아한다. 그 옷들은 프리 사이즈이기에 더운 날씨에 큰 체구의 여성이 편하게 입기에 좋다. 나는 주로 공식적인 행사에 이 드레스들을 입곤 했다. 이번 작품의 모델로 내 친구들과 가족들이 참여했다. 내 오빠인 자니와 남동생인 클런딘이 포즈를 취했으며, 언니인 자니나와 조카들인 소피, 인야카, 엘리아, 아티쿠스, 라일라나도 함께했다. 나는 토레스 해협과 에보리진의 유산을 물려받은 호주 원주민이다. 내가 검다(Blak)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재를 살고 있음에 또한 기쁘다.

데스티니 디콘은 1957년 퀸즐랜드주 메리버로에서 태어나 현재 멜버른에 살고 있다. 디콘은 쿠아쿠아(K’ua K’ua)와 이럽 · 메르(Erub·Mer) 민족의 후손이다. 작가이자 연기자인 그녀는 에보리진의 정체성과 인종적 편견을 탐구함으로써 에보리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디콘은 1979년에 멜버른대학교에서 문학사(정치학) 학사를 취득했고, 1981년 라트로브대학교에서 교육학 과정을 수료했다. 그녀는 2002년 독일카셀도쿠멘타11와 2010년 쿠바 제10회 하바나비엔날레 참여작가다. 2004년 시드니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 ‘데스티니 디콘: 검게 보이지 않고 걷다(Walk and Don’t Look Blak)’는 멜버른, 누메아, 웰턴, 도쿄 등에서 전시되었다. 버지니아 프래저는 본인의 고향인

멜버른에 거주하며, 예술가이며 작가, 편집자, 큐레이터다. 그녀의 작품은 영상작업과 설치미술이 주를 이루며, 주로 디콘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작된다. 필립공과대학교(Phillip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문학사(미디어 예술) 학위를, 빅토리아예술대학(Victorian College of the Arts)에서 순수미술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호주 여성에 관한 책(A Book About Australian Women, 1974)〉, 피터 블레이지(Peter Blazey)의 저서 〈나사 빠진 인간: 부적절한 회고록(Screw Loose: An Uncalled for Memoir, 1997)〉, 〈센트럴 비즈니스 드림িং(Central Business Dreaming, 2008)〉 등의 편집을 맡았다.

마틴 스미스

Martin SMITH

나는 사진과 텍스트, 퍼포먼스 작업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재현하는 내러티브 방식을 연구한다. 내러티브는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우리 인생을 풀이하고 정의한다. 우리는 오로지 내러티브를 통해 내 외부적으로(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통해, 외부적으로는 표현을 통해) 소통하며 그것들은 우리가 주위의 환경과 서로를, 나아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다. 내 작품은 내용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양한 매체로부터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서 해석과 표현의 관계에 질문을 던진다. 나는 본연의 형태로는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것과 조화되지 않는 사진과 합쳐졌을 때 그 의미가 균열되거나 헛갈리게 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든다. 그럼으로써 의미를 창조하고 통제하는 이야기 구조의 메커니즘을 알리고자 한다.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의 메커니즘을 파헤치기 위해 나는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그 중 하나는 손으로 잘라낸 텍스트를 일상의 사진에 붙이는 방식이다. 어린 시절 사적인 이야기를 특정

모양으로 자르는 작업을 통해 우리가 육체적 형태로 기억되는지 혹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남는 이야기를 통해 기억되는지 질문을 던진다. 문구에 들어가는 낱말들은 사진의 표면 위에서 잘라져 자국을 남김으로써 조각을 연상하게 한다. 잘려진 낱말들은 사진의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프레임 속에 위치한다. 이는 마치 떨어진 낙엽처럼 각각의 이미지 아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되어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난 뒤 사진과 인물이 과도기를 겪는 가을 경관을 만들어낸다.

마틴 스미스는 1972년 브리즈번에서 태어났고 현재 거주 중이다. 그는 단어와 이미지를 조합하여 가족과 기억, 상실,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가다. 스미스는 1995년 그리피스대학교와 퀸즐랜드예술대학에서 시각미술(사진학) 학사를 수료했고 2000년에는 시각미술학(우수학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그리피스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이수 중이며 그리피스대학교 및 퀸즐랜드예술대학 사진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스미스는 홍콩아트페어, 프랑스 파리포토, 미국 하우스프로젝트미술관(Hous Projects Gallery), 미국 포토L.A., 호주 호바트 아트뮤지엄모나(MONA, Museum of Old and New Art), 시드니현대미술관, 브리즈번현대미술관, 캔버라이트스페이스, 퍼스현대미술관 등에서 전시했다. 퀸즐랜드미술관(브리즈번), 모나쉬시립미술관(멜버른), 아트뮤지엄모나(호바트), 퀸즐랜드대학교미술관(브리즈번), 아트뱅크 등에서 스미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는 베올리아 환경 사진 어워드(Veolia Prize), 클레이턴 Utz 장학금 (Clayton Utz Travelling Scholarship), 프로메테우스 어워드(Prometheus Award)에서

수상했다. 2008년 〈마틴 스미스, 사진, 응답하다(Martin Smith, photographs, In response to)〉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마이클 쿡

Michael COOK

나는 학교에서 한번도 에보리진 역사에 대해 배운 적 없고, 오직 유럽인의 호주 정착에 대해서만 배웠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처음 유럽 정착민들이 가졌던 믿음과 흡사했는데, ‘원주민’, ‘호주의 발견’과 같은 단어들인 그것이다. 되돌아보니 그것은 잘못된 교육 방식이었고, 지난 400여년간 에보리진이 받은 취급에 대한 진실이 숨겨졌음을 깨달았다. 캡틴 쿡은 ‘이들은 정말로 순수한 자연의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우리 유럽인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라고 기록했다. 식민지 개척자의 시각에서 문명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에보리진 문화를 더 제대로 이해해서 과연 우리 역사가 변화되었는가? 문명화란 패션, 언행, 경작, 기독교적 믿음 등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피부색이나 외모와 관련된 것인가? 이번 작품 속의 에보리진 호주인들은 식민지 이전과 식민지 초기에 호주를 방문한 네 유럽 국가인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의상을 입고 있다. 작품은 ‘무엇이 인간을 문명화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만약 에보리진들이 진정으로 문명화되었음을 깨달았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이클 쿡은 1968년 브리즈번에서 태어났고 현재 거주 중이다. 남서부 퀸즐랜드의 Bidjara 민족 출신인 그는 자신의 토착 활동에 대해 배우고 정체성을 탐구하려는 갈망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2014년에 호주문화예술진흥원(Australia Council of the Arts)과 뉴욕에 위치한 그린 스트리트

녹슨 쇠 수세미로 만든 소름 끼치는 가발 등이 내 머리에 거꾸로 씌워졌다. 그녀는 내 이마에 납근 모양의 코를 붙이고 머리털이 곤두선 가발을 씌웠으며, 글램록 스타일의 튜브톱을 입혔다. “나 뽀잖아 보여?” 내가 물었다. 그녀는 “아름다워” 라고 대답했다. 나를 벗기고, 축소시키고, 객관화하며 그녀의 광적이고 우울한 이미지들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모습에 얹었다. 그리고는 다시 카메라를 집어 들어 그녀의 작품에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슬프고 에로틱한 분위기로 나를 끌고 갔다.

Nick Cave, Smudge, Actar, Barcelona/New York, 2010, p. 1.

폴리 볼란드는 1959년 멜버른에 태어나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거주 중이다. 1983년 멜버른 프라란대학에서 사진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2001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50주년 행사 촬영을 맡은 여덟 명의 사진가 중 한 명에 선정되었고, 1994년에는 존 코발 인물사진 공모전(John Kobal Photographic Portrait Award)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그녀는 1999년 사우스뱅크 멜트다운 페스티벌(Southbank’s Meltdown Festival)에서 열린 닉 케이브(Nick Cave)가 큐레이팅한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2000년 영국 및 호주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0년 Powerhouse 출판사를 통해 故 수전 손택의 에세이가 수록된 그녀의 첫 작품집 〈아기(The Babies)〉가 출판되었다. 볼란드의 작품은 2012년 퀸즐랜드대학교미술관에 전시되었고, 뉴사우스웨일즈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곤 했다 – 발네이브스 컨템포러리(We Used to Talk About Love - Balnaves Contemporary)’에 출판되었다. 그녀의 작품은 데미안 허스트의 머더미컬렉션(Murderme Ltd Collection), 영국 및 호주 국립초상화미술관, 호바트 아트뮤지엄모나(MONA, Museum of

Old and New Art), 뉴욕앤디워홀 재단 등에 소장되었다. 2013년 3월 호주 ABC 텔레비전에서 알렉스 초믹스(Alex Chomicz)가 감독한 폴리 볼란드와 그녀의 작품 ‘다형체(Polymorphous)’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트레이시 모팻

Tracey MOFFATT

1997년, 일주일 동안 미지의 장소로 떠난 여행에서 이번 전시의 사진들을 찍었다. 나는 이 사진들이 몽환적이고 호주 북부 열대지방이나 캐리비안, 혹은 미국 남부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찍힌 것 같은 느낌을 주길 원했다. 내 두 폭 작품인 ‘대농장(Plantation)’에는 일종의 서술적인 의미가 있지만, 나는 보는 이가 사진의 특이한 ‘모습’에 가장 먼저 주목하기를 바란다. 일반적인 사진과는 달리 내 사진은 평면을 거부하며, 과장된 색감으로 표면을 색칠하고 있다. ‘팔레트’는 마치 훔마크 카드 같이 예쁘고 그림 같은 느낌을 준다. 인화물은 낡은 느낌과 우수성이 있으며 그 이미지들은 이미지가 되기 위해 분투한다. 이미지는 깨져있고, 화면 안의 몇몇 부분은 사라졌다. 내 작품은 땅에서 막 과낸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식민지 시대의 무너진 집 아래에 묻힌 썩은 가방에서나 발견됐을 법한 느낌이다. 만약 ‘대농장(Plantation)’ 사진들이 정말로 낡은 가방에서 발견된 것들이라면, 그 안에서 펼쳐지는 시나리오는 다소 이상하게 일컬힐 것이다. 멋진, 약간은 황폐한 식민지 풍의 주택이 있는데, 그 주변과 땅 위는 빛이 난다. 빛은 어떠한 ‘원천’에서 비롯된 것 같아 보이는데, 이는 철제 창고에 반사되는 강렬한 태양과 운전 중 눈에 작렬하여 순간적으로 눈을 멀게 하는 오후의 태양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한다. 나는 ‘대농장’(Plantation) 사진들이 문학과 같다고 생각한다. 열두 장의 두 폭 사진들은 마치 반복되는 줄거리를 가진 열두 개의 챕터와 같다.

- ‘트레이시 모팻의 대농장(Plantation) 시리즈에 대한 그녀의 고찰’(Tracey Moffatt’s thoughts on her photographic series Plantation) 2009’에서 발췌

트레이시 모팻은 1960년 브리즈번에서 태어나 현재 뉴욕에 거주 중이다. 모팻은 1989년 첫 개인전 이후로 많은 전시 활동을 해왔다. 2012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그녀의 회고전이 열렸다. 그녀는 2007년 뉴욕 국제사진센터에서 주관하는 미술사진 인피니티 어워드(Infinity Award)의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그녀는 단편영화 Night Cries가 1990년 칸느영화제에서 선정되고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 첫 피쳐 필름 beDevil 또한 1993년 칸느영화제에서 선정되었다. 모팻은 1997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부문에 선발되었으며, 시드니비엔날레, 상파울루비엔날레(1998), 광주 비엔날레(1995)에 참여했다. 1997~1998년에 뉴욕디아아트센터(Dia Center for the Arts)에서 대형 전시를 개최했고, 2003년에는 시드니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의 회고전을 열었으며 이 전시는 후에 스웨덴 핫셀블라드박물관에서 순례전을 열었다. 2006년 밀라노의 스파저오 오베르단(Spazio Oberdan)에서는 이탈리아에서의 첫 회고전을 가졌다. 2007년에는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사진 시리즈 ‘스카드 포 라이프(Scarred For Life)’을 선보였으며, 비디오 작품 ‘LOVE’는 뉴욕 브루클린미술관에 전시되었다.

트렌트 파크

Trent PARKE

‘카메라는 신이다(The Camera is God)’ 시리즈 제작을 위해 나는 에들레이드의 한 골목길에서 일년 내내 매일 같은 시간 촬영을 했다. 반대편 골목의 신호등 앞에서 사람들이 기다릴 때, 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빠른 속도로 계속 셔터를 눌렀다. 내 카메라가 누구를 찍던지 의식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고, 삶과 우연이 결정하게 했다. 오늘날에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일상의 모습들을 지켜보며 항상 같은 일을 한다. 최종 프린트 작업을 할 때는 35mm 필름 속에 잠긴 군중 속의 특정 얼굴들을 조준해서 확대했다. 이 프린트 속 대상은 각기 다른 선명도로 나타난다. 멀리서 식별 가능한 몇몇은 가까이 당기면 곡물 알갱이의 패턴으로 증발해 버린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을 현미경 아래에 놓고 입자와 물질의 수준으로 관찰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불특정한 익명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낮익다. 마치 누군가의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그 사람의 얼굴 윤곽이 선명히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이 작업은 거리의 모습을 통해 삶 자체의 순간적인 성질을 담으려는 시도다.

트렌트 파크는 1971년 호주 뉴캐슬에서 태어나 현재 에들레이드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저명한 사진가집단인 매그넘 포토 에이전시(Magnum Photo Agency)의 정회원으로는 첫 번째 호주인이다. 그는 1999, 2000, 2001, 2005년 세계보도사진전에서 수상했으며 1996, 1997, 1998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다섯 개의 Gold Lens를, 2000년 사사카와 세계스포츠포상에서는 캐논포토에세이상을 수상했다. 2003년에는 인문학 사진 부문에서 유진 스미스 기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그의 작품은 포토케 2011의 공식적인 행사로 주프랑스 호주대사관에서 전시된 바 있으며, 2005년 노더리히트 사진제 – ‘흔적과 정조(Norderlicht Traces and Omens Photo Festival)’, 미국 앨리스오스틴박물관 등 매그넘이 주관한 다수의 전시관, 폴란드 유어스갤러리(Yours Gallery), 영국 포토퓨전(Photofusion), 프랑스 르샤토드(Le Château d’eau), 네덜란드 암스테르담Foam Fotografiemuseum, 2006년 방글라데시 벵골미술관, 초비 델라 IV 국제사진제 등에서 전시되었다. 파크는 2009년 시드니오페라하우스의

전속 작가로 임명되었다. 그의 작품은 호주 현대미술관, 빅토리아국립미술관, ABN암로컬렉션(ABN Amro Collection), 뉴사우스웨일즈미술관, 호주 사진센터, 골드코스트시립미술관, 호주 국립미술관, 호주 국립해양박물관, 영국 매그넘런던, 프랑스 매그넘파리 등에 소장되었다. 〈그는 꿈과 삶(Dream/Life, 1999)〉,〈일곱 번째 물결(The Seventh Wave, 나렐 아우티오Narelle Autio 공저, 2000)〉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현재 그는 최근 작품집 출판을 위해 슈타이들(Steidl)과 작업 중이다.

윌리엄 양

William YANG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자화상들은 내가 80년대 후반부터 작업해온 슬라이드 프로젝트 독백에서 발전된 것이다. 이 공연은 짧은 이야기나 사진 에세이의 형태로 시작되어 장문의 자서전 같은 작품으로 발전했다. 몇 작품을 완성하고 난 후 나는 내가 전체 조각을 하나로 연결하는 집착체 같음을 깨달았고, 이후 작업에 나를 소재로 담아내는 것을 덜 두려워하게 되었다. 나는 사진촬영을 함에 있어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주관적 관점으로 작가의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는 것과, 그것이 더 진실됨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은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진은 이야기 혹은 어떠한 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람자를 끌어들이는 텍스트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진과 텍스트가 합쳐졌을 때 작품은 이야기 공연에서 기인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텍스트는 축소되고 정제된다. 나는 최종 결과의 간결함이 좋다. 내 텍스트는 이미지를 보완하는 시와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앵글로-오스트레일리아 문화에서 태어난 중국인이며, 이성애자들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동성애자다. 내 작업은 내가 어떻게

나의 ‘다름’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예술의 소재로 삼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윌리엄 영(William Young)은 1943년 북 퀸즐랜드에서 태어나 1983년 윌리엄 양(William Yang)으로 개명 했고, 현재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이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극작가로 활동했으며 이후로는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해왔다. 1977년에 열린 그의 첫 개인전 ‘시드니성애자(Sydneyphiles)’는 시드니의 게이와 파터 장면에 대한 솔직한 묘사로 반향을 일으켰다. 1989년 윌리엄 양은 작가로서의 능력과 시각 예술가로서의 능력을 통합했다. 그는 극장에서 슬라이드 프로젝션을 사용하여 독백을 연출했다. 그의 유명한 독백으로 아시아, 호주, 유럽, 북미 지역을 넘나들며20회 이상의 개인 사진전을 열었다. 그는 1993년 허가시기와국제사진제에서 ‘올해의 국제 사진가’상을 수상했다. 1997년 그의 전시 ‘도시의 친구들’은 시드니 게이 앤 레즈비언 마디그라 축제(the Sydney Gay and Lesbian Mardi Gras)에서 시각예술상을 수상했다. 양은 1998년 사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퀸즐랜드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Honorary Doctorate of Letters)를 수여 받았으며, 2007년에는 호주국립대학교에서 H.C. Coombs 창조예술 펠로우십(H.C. Coombs Creative Arts Fellowship)에 선정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2년간 호주문화예술진흥원 펠로우십에 선정되어 그가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에서 선보인 공연 작품을 DVD로 제작하는 작업을 맡았다. 뉴사우스웨일즈주립미술관, 일본 허가시가와시립미술관, 시드니현대미술관, 캔버라국립초상화미술관 등 수많은 기관들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Christian THOMPSON

I heard a story many years ago from some old men, they told me about a ceremony where young warriors would make incisions through the flesh exposing the joints then they would insert gems in-between the bones to emulate the creator spirits, often enduring infection and agonizing pain or even resulting in death. The story has stuck with me for many years, one that suggests immense pain fused with intoxicating beauty. The idea of aspiring to embody the creators, to transgress the physical body by offering to our gods our spiritual heart, freeing ourselves of suffering by inducing a kind of excruciating decadent torture. This was something that played on my mind during the production of this series of photos. The deliverance of the spirit back to the land, the notion that art could be the vehicle for such a passage, the aspiration to occupy a space that belongs to something higher than one's physical self.

- Christian Thompson, Oxford 2012

Christian Thompson was born in 1978 in Gawler, South Australia. Thompson holds a Bachelor of Visual Art (Fine Art),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Bachelor of Fine Art (Honours),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Masters of Fine Art,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and a Masters of Theatre from the Amsterdam School of Arts. He is a photographic, conceptual and performance artist who has influenced a new generation of Indigenous Australian artists whose work explores issues of identity, cultural hybridity and history. Thompson is an inaugural Charlie Perkins Scholar and the first Aboriginal Australian artist to be admitted to Oxford University where he recently completed a Doctorate of Philosophy (Fine Art), Trinity College. He has undertaken residencies at Dasarts Advanced Studies for Performing Arts, The Netherlands; Centre for Future Art Research at Arizona State University, USA; Blast Theory, UK; Greene Street Studio, USA and

the Fonderie Darling Studio, Canada. His work is held in major public and private collections including the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Canberra;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Sydney; Aboriginal Art Museum, The Netherlands; The Pitt Rivers Museum, UK; The Peter Klein Collection, Germany; the Marc Sordello and Francis Missana Collection, France and the Wagner-Owen Collection, USA.

Destiny DEACON and Virginia FRASER

Mum often spoke about her Torres Strait culture and life on Erub. She loved school, but only went up to grade two, then was evacuated to Hopevale on the mainland because of World War Two. Mum had a lot of knowledge, history and culture, untouched by government and missionary influences. We grew up in suburban Melbourne where no one else looked like us. I remember as a child, being spat on, having rocks thrown at me. Racism. We preferred to watch Mickey Mouse or play outside with friends. I grew up in houses where it was always on for young and old - food, drink, laughs, fights, music and politics - universal mixture of oppressed but aware people - tribal, rural and urban aborigines, Africans, Polynesians, poor whites, African Americans and Torres Strait visitors. I have a few Torres Strait Islander frocks or 'Marys' as mum called them. I like them, one size fits all and they're comfortable for a big girl in hot weather. I have worn these frocks at formal events. I use friends and family as models in my work. My brothers Johnny and Clinton have posed for me, as well as my sister Janina and nieces and nephews, Sofii, Inyaka, Elia, Atticus and Leilana. I think of myself as an Indigenous Australian of Torres Strait and Aboriginal heritage. I'm proud to be Blak and happy it's more normal now

than when I was growing up.

- Destiny Deacon

Destiny Deacon was born in 1957, Maryborough, Queensland and she is currently based in Melbourne. Deacon is of the K'ua K'ua and Erub/Mer peoples. An artist and performer, she is concerned with Aboriginal politics by exploring Aboriginal identity and racist stereotypes.

Deacon completed a Bachelor of Arts (Politics), the University of Melbourne in 1979 and a Diploma of Education, La Trobe University in 1981. Her work featured in Documenta 11, Kassel, Germany, 2002, and the 10th Bienal de La Habana, Cuba, 2010. The survey exhibition *Destiny Deacon: Walk and Don't Look Blak*, Museum of Contemporary Art, Sydney, 2004, toured to Melbourne, Noumea, Wellington and Tokyo.

Virginia Fraser was born in Melbourne where she is currently based. Fraser is an artist, writer, editor and curator. Her art practice consists mainly of video and installation works, often made in collaboration with Deacon. She holds a Bachelor of Arts (Media Arts), Phillip Institute of Technology, Melbourne, and a Master of Fine Arts by research from the Victorian College of the Arts, Melbourne. Fraser edited *A Book About Australian Women* (1974); *Screw Loose: An Uncalled for Memoir* by Peter Blazey (1997); and *Central Business Dreaming* (2008).

Martin SMITH

Through photography, text and performance my artworks explore the way narratives represent personal experience. Narratives surround us, they create our identity and allow us to interpret and define our lives. We communicate, both internally (through thought) and externally (through expression); exclusively through narratives and they provide us with the framework through which we understand our environments, each other and ourselves. My work combines narratives from different media (text, photography and

performance), where the content has no linear connections, to que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retation and representation. My desire is to create new narratives that are recognizable in their true form (such as text) but their meaning becomes fractured or confused when paired with an incongruous photograph to reveal the mechanisms of narrative structures that create and control meaning.

I use several strategies to interrogate the mechanisms of narrative structure and meaning. One method is to hand-cut text into vernacular photographs. The personal story of youth is cut into the shape of a figure and questions whether we are remembered through our physical form or the narratives that make us and endure after we pass. The lettering for the text is cut from of the photographic surface, scarring them and giving them a sculptural quality. The cut letters fall to the bottom of the picture and are captured by the picture frame, sitting at the bottom of each image like fallen leaves creating an Autumnal scene where visible change has occurred and the picture and the figure are going through a transition.

- Martin Smith

Martin Smith was born in 1972 in Brisbane where he is currently based. Smith combines words and images to explore family, memory, loss and identity.

Smith completed a Bachelor of Visual Art (Photography) at Queensland College of Art, Griffith University in 1995, and a Bachelor of Visual Art (Honours) in 2000. He is currently a doctoral candidate at Griffith University and teaches in the photographic department at the Queensland College of Art/Griffith University.

His work has been exhibited at the Hong Kong Art Fair, Hong Kong; Photo Paris, France; Hous Projects, USA; Photo LA, USA; the Museum of Old and New Art, Hobar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Sydney; the Gallery of Modern Art, Brisbane; Canberra Contemporary Art Space, Canberra and Perth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Perth. The following collections in Australia have acquired his work: the Queensland Art Gallery, Brisbane; Monash City Gallery, Melbourne; the Museum of Old and New Art, Hobart; University of Queensland Art Museum, Brisbane and Artbank.

He has been awarded the Veolia Prize, the Clayton Utz Travelling Scholarship and the Prometheus Award. In 2008 he released a monograph titled *Martin Smith*, photographs, in response to.

Michael COOK

I was never taught Aboriginal history at school, only about European settlement of Australia. What I learnt in school was similar to the first European settlers' beliefs, with words like 'natives' and 'discovery of Australia'. Looking back now, I realise that it was a false way of teaching, and that it hid the truth about the treatment of Aborigines over the past four hundred years.

Captain Cook wrote 'these people may truly be said to be in the pure state of nature, and may appear to some to be the most wretched upon the earth; but in reality they are far happier than ... we Europeans.' What was the colonisers' view of what it means to be civilised, and would a better understanding of Aboriginal cultures have made a difference to our history? Was being civilised about fashion, speech, cultivating the land, having Christian beliefs, or was it to do with the colour of someone's skin or how they appeared?

This body of work dresses Aboriginal Australians in the fashions of four European countries that visited Australia before and in the early stages of colonisation: Spain, The Netherlands, England and France. It asks 'what makes a person civilised?' and suggests how different history might have been if those Europeans had realised that the Aborigines were indeed civilised.

- Michael Cook

Michael Cook was born in Brisbane in 1968 where he is currently based. He is of the Bidjara people of South-West Queensland. His photography comes from a desire to learn about his Indigenous ancestry and explore that aspect of his identity. In 2014 he is undertaking an Australia Council of the Arts, Greene Street Studio Residency in New York City. In 2011 and 2008 he won 'Visual Artist of the Year', 17th Annual Deadly Awards - The National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wards.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the Museum of Australian Democracy at Old Parliament House, Canberra; October Gallery, UK; LaTrobe University Gallery Visual Arts Centre, Victoria and Queensland Centre for Photography at The Depot, Sydney. He was included in the 19th Biennale of Sydney in 2014, Photo LA in 2014 and 2013 and the 7th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APT7) in 2012.

Cook's work is held in major collections including the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Canberra;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Maritime Museum, Sydney; Australian War Memorial, Canberra; Parliament House, Canberra;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Sydney; Art Gallery of Western Australia, Perth; Queensland Art Gallery, Brisbane;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Monash Gallery of Art, Melbourne; Westpac Corporate Art Collection and The Owen and Wagner Collection of Australian Aboriginal Art (USA).

Patrick POUND

The writers' room is compiled of a collection of found/bought photographs which collectively depict the world in microcosm. The collection is loaded with narrative implications. These evidentiary images range from a newspaper photograph of a hostage note published in the classified ads to a scene of an empty city.

The images are sourced from a defunct newspaper's archives and vernacular snaps from France, Germany, England, America and Australia. They were all found and bought on the internet. For me, the internet is like some great unhinged album waiting to be sorted. My work tends to treat the world as if it were a puzzle waiting to be solved. The search is part of the meaning? if you will.

This new work is about finding narrative possibilities in the world of discarded and shuffled images. It also is a part of an ongoing sort of human comedy. Assembled as a scatter-piece pinned to a wall, they take on quite marked, but uncertain, narrative implications. They are menacing and melancholy.

The work is at once loaded with: psychological, narrative, dramatic, literary

and cinematic effects and connotations. Put together, the individual parts set stories in episodic motion. Cinema stills are shuffled with everyday images dispersed from family albums and defunct newspapers, these images add up to a list of possible storylines - as if from a Douglas Sirk film. Every set of photographs is inherently episodic. This charged set is deliberately and peculiarly so.

- Patrick Pound

Patrick Pound was born in New Zealand in 1962 and has been based in Melbourne since 1989. Pound's work treats the world as if were a puzzle to be solved. His work also constantly tests the limits of found photographs and of sets of collected things, to hold ideas.

He has been awarded the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Artist's Development Project Grants 2004, 2001, 1998, 1995, 1992; Q.E. II NZ Arts Council Grants (painting) 2004, 1990, 1987; Norman MacGeorge Scholarship (art history research fellow) University of Melbourne 2008 and Fred Knight Scholarship, University of Melbourne, 2007.

In 2014 Pound exhibited a major installation in Melbourne Now at the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rtspace, MacKay; Centre for Contemporary Photography, Melbourne and Australian Centre for Photography, Canberra.

His work is held in numerous collections including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Canberra;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and the following New Zealand museums: Auckland City Art Gallery; Dunedin Public Art Gallery; Christchurch Art Gallery; The Museum of New Zealand; Waikato Museum of Art and History; Govett Brewster Gallery; New Plymouth and Chartwell Trust.

* Pound is working on a book to be called: *Findings - on found photography*.

Paul KNIGHT

These works all depict couples resting in bed and are shot on large format negative. The prints are direct enlarger prints without any digital corrections and are made so that they show more beyond the edge of the negative, giving a pure black along with the photographic black. All the

artefacts generated by the processes of the medium, scratches and punctures (from the processing racks) etc. are left in and become part of the image. A folded intervention is then made to the print before mounting, so that it sits lightly with volume in the frame. The inclusion of the rebate and artefacts both act to heighten the materiality of photography and to become an element of disruption when the lines are broken at the fold, aiding the tension between photographic flatness and its' connection to perceptual and actual form.

By making the intervention of the fold to the image, I want to articulate the psychological territory of the subject matter in connection to questioning the power and ability of the photographic image to communicate. The work pushes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action of compression and expansion and they are at once melancholic and gentle, still and distressed. The figures become simultaneously dislocated and confused, combining to generate a single being of part objects. On a formal level, I want to push the photograph into a reality where it becomes the sculptural or spatial medium, evocative of emotional space that I see it having access to.

- Paul Knight

Paul Knight was born in 1976, Melbourne and he is currently based in London. He graduated from the Victorian College of the Arts in 2001 with a Bachelor of Fine Art (Honours) in Photography and from the Glasgow School of Art in 2009 with a Master of Fine Art. From 2002-2004, Knight was a recipient of the Gertrude Contemporary studio program, Melbourne. Knight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The Centre for Contemporary Photography, Melbourne; Perth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Perth and the Australian Centre of Photography, Sydney. He has exhibited at the Australian Center for Contemporary Art, Melbourne; Palazzo delle Arti, Naples; Chelsea Art Museum, New York; Museum of Contemporary Art, Sydney and in the Glasgow International Festival for Visual Arts. In 2009 he was included in New Contemporaries in Manchester and London. In 2007 Knight was awarded the prestigious Samstag Traveling Visual Arts Scholarship and in 2009 he won the William & Winifred Bowness Photography Award. Most recently

Knight exhibited in Melbourne Now at the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and was included in We Used to Talk About Love - Balnaves Contemporary at the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Sydney.

Polixeni PAPANETROU

The Ghillies, (2013) focuses on a single indefinable anthropomorphic presence, as if coming out of the land, dominating the natural environment. Inside these ominous statues is my son on the cusp of adolescence, wearing a ghillie suit (a camouflage outfit originally developed for hunting and the military).

The Ghillies reflects on the surrendering of childhood, when boys separate from maternal intimacy and are absorbed into institutional camouflage of one kind or another. These photographs speak metaphorically about adolescent boys and how they might reconcile their inner world with the social demands of the outer world. The disguises, masks and outfits worn by the characters in my photographs change young bodies into old, children into animals or even plant forms. These figures of growth and decay arouse a gentle pathos, reminding us of our own shape shifting, of time playing out on our bodies and minds. As the child subjects have grown and transformed so too have the roles they perform and spaces they inhabit, transcending boundaries of history and culture.

My photographs testify to how childhood relates to the adult world: they speak to an unconscious imag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contemplate how their imagination has a monumentality beyond the social.

- Polixeni Papaetrou

Polixeni Papapetrou was born in 1960 in Melbourne where she is currently based. She is a photographic artist who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y, contemporary culture and identity in her work. She holds a PhD, Monash University, Melbourne; Master of Arts in Media Arts, RMIT University, Melbourne and LLB/BA, University of Melbourne. She was the recipient of the Josephine Ulrick & Win Schubert Photography Award in 2009.

In 2013 Papapetrou represented Australia at Fotografica Bogot?, Columbia and in 2010 at the European Month of Photography Festival, Bratislava and the Athens Festival of Photography. Recent surveys of her work were shown at the Australian Centre for Photography, Sydney in 2011 and at Centre for Contemporary Photography, Melbourne in 2013. She has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National Arts Center, Tokyo; Seoul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Seoul; Museum of Photography, Seoul; 3rd Biennale Photoquai at Le mus?e du quai Branly, Paris; De Cordova Museum and Sculpture Park, Massachusetts; Museum of Photographic Arts, San Diego; Aperture Gallery, New York and at 'Le Mois de la Photo', Montreal. Papapetrou's work is held in public collections including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Canberra;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Museum of Contemporary Art, Sydney; Edith Cowan University, Perth; Monash Gallery of Art, Melbourne; Museum of Fine Arts, St. Petersburg.

*This project has been assist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through the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its arts funding and advisory body.

Polly BORLAND

My friend Polly Borland rang me one morning. She wanted me to model for some photographs. Now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in this world: those who like having their picture taken and those who don't. I exist squarely in the latter... So it was that I went around to her house in Brighton. We played dress ups. Polly squeezed me into body stockings, rubber bathing caps, crotch-accentuating leotards; she shoved ping pong balls down the front of a lycra tankini, attached cow udders to my face, rouged my nipples, pulled shredded pantyhose over my head; wigs were put on backward - electric blue ones, blonde ones, horrid ones made of rusted steel wool; she glued phallic noses to my forehead, fright-wigged me, squeezed me into glam rock boob tubes. "Do I look all right?" I asked. "You look beautiful", she replied as she emptied me out, reduced me, objectified me, transposed her crazed and melancholy imaginings onto the little that was left of

me. Then with the snap of her camera, Polly ushered me into the community of sad, eroticized creatures that populate most of her work.

- Nick Cave, Smudge, Actar, Barcelona/New York, 2010, p. 1.

Polly Borland was born in 1959 in Melbourne and she is currently based in Los Angeles. Borland completed a Diploma of Photography at Prahran College, Melbourne in 1983.

In 2001 Borland was one of eight photographers selected to photograph Queen Elizabeth II for the Golden Jubilee. In 1994 she won the prestigious John Kobal Photographic Portrait Award. Her work has appeared in numerous exhibitions including Southbank's Meltdown Festival in 1999, curated by Nick Cave and a solo exhibition in 2000 at The National Portrait Galleries in London and Canberra. Powerhouse published her first book The Babies in 2001 with an essay by the late Susan Sontag. In 2012 a survey show of Borland's work was held a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rt Museum. In 2013 Borland's photographs were included in We Used to Talk About Love - Balnaves Contemporary at the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Sydney.

Borland's work has been acquired by the collections of the Damien Hirst's Murderme Ltd Collection; the National Portrait Galleries, UK and Australia; the Museum of Old and New Art, Hobart and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New York.

A documentary on Polly Borland and her work, entitled Polymorphous, directed by Alex Chomicz, was aired on ABC Television in Australia in March 2013.

Tracey MOFFATT

In 1997, over a period of a week, I travelled to a mysterious location and shot these pictures... I want the photos to have a dream like feel and look like they could have been shot in Australia's tropical north, or the Caribbean, or the Deep South in the US, or somewhere in South East Asia. Or possibly Africa... Narrative-wise there is something going on in my Plantation diptych photos but I hope firstly it is the unique 'look' to the prints that attract. The prints aspire not to be flat,

as is the convention of most photography. Instead they have a painted textured surface with heightened colouration. The 'palette' can read as pretty and picturesque almost Hallmark greeting card-like in feel. There is a battered, quality to the printing; the images struggle to be images. They are cracked, and parts of the image are not there. The pictures feel like they have been unearthed, as if found in some rotten suitcase buried underneath a collapsed colonial house...

If the Plantation photos were indeed found in an old suitcase, then the scenario unfolding in them would read as a little strange. There is a nice slightly run-down colonial house, with lights appearing around it and on the grounds. The lights seem to come from a 'source', but they are also coming from the intense sun reflecting off of an iron shed, and a blinding afternoon glare, the type of summer afternoon light that hits you in the eye when you are driving home and it momentarily blinds you...

I think my Plantation photographs look like literature. The twelve diptychs are like twelve chapters - and they are repetitious storylines - chanting over and over.

- Excerpt from 'Tracey Moffatt's thoughts on her photographic series Plantation, 2009'.

Tracey Moffatt was born in 1960 in Brisbane and she is currently based in New York. Moffatt has exhibited extensively since her first solo exhibition in 1989. In 2012 a retrospective programme of her films was held at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In 2007 she was awarded the prestigious Infinity Award for art photography, selected by an International panel at the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in New York. Moffatt first gained significant critical acclaim when her short film, Night Cries, was selected for official competition at the 1990 Cannes Film Festival. Her first feature film beDevil was also selected for Cannes in 1993. Moffatt was selected for the international section of the 1997 Venice Biennale (curated by Germano Celant) and has also featured in the biennales of Sydney, Sao Paulo (1998) and Gwangju (1995). She held a major exhibition at the Dia Center for the Arts in New York in 1997-98,

and in 2003 a large retrospective exhibition of her work was held a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Sydney which also travelled to the Hasselblad Museum in Sweden. In 2006, she had her first retrospective exhibition in Italy at Spazio Oberdan, Milan. In 2007, her photographic series, Scarred For Life, was exhibited at the Guggenheim Museum and her video, LOVE, at the Brooklyn Museum in New York.

Trent PARKE

To make The Camera is God I photographed on the same street corner in Adelaide, at the same time of day, every day for almost a year. As people waited at traffic lights on the corner opposite, I would use a shutter release firing constantly at a rapid rate to capture the crowds. I didn't try to control who my camera captured, but let life and chance decide. There are security cameras all over cities now, doing the same thing, watching daily life happen in front of them.

In creating the final prints I zeroed in on particular faces from the crowd captured on the 35mm film and enlarged them. The subjects emerge with different levels of clarity. From far away, some are recognizable, only to evaporate into a pattern of grain close up. It was like putting people under a microscope and seeing them at the level of particles and matter. People looked familiar even though they were anonymous, like when you have a dream about someone and you wake up you try to remember them and you can't grasp that hard outline of a person's face.

I was trying to capture the transient nature of the street, and indeed life itself.

- Trent Parke

Trent Parke was born in 1971 in Newcastle and he is currently based in Adelaide. He is the first Australian to become a Full Member of the renowned photographers' cooperative Magnum Photo Agency. He was awarded the World Press Photo Awards in 1999, 2000, 2001, and 2005; five Gold Lenses from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1996, 1997 and 1998) and the Canon Photo Essay Prize in the 2000 Sasakawa World Sports Awards. In 2003 Parke was awarded the prestigious

international W. Eugene Smith Grant in Humanistic Photography prize. His works have been exhibited at the Australian Embassy in Paris as an official part of the Photoquai 2011 festival; the 2005 Noorderlicht Traces and Omens Photo Festival; and by Magnum at venues including Alice Austen House, USA; Yours Gallery, Poland; Photofusion, UK, Le Ch?teau d'eau, France; Foam Fotografiemuseum, The Netherlands and Bengal Gallery of Fine Arts, Chobi Mela IV, International Festival of Photography, Bangladesh in 2006.

In 2009, Parke was commissioned by the Sydney Opera House, as an artist in residence, to shoot behind the scenes. Parke's work is held in Australian collections including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the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ABN Amro collection;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n Centre for Photography; Gold Coast City Art Gallery;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National Maritime Museum as well as Magnum London, UK and Magnum Paris, France; He has published two books: Dream/Life (1999) and The Seventh Wave (with Narelle Autio) in 2000. He is currently working with Steidl on the publication of his more recent series.

William YANG

The self-portraits grew out of the monologues with slide projection I had been doing since the late eighties. These performances started as short stories or photo essays which grew into longer autobiographical works. I realized after I'd done a few that I was the glue that held the whole piece together and I became less afraid to put myself into the story. I had held the view of many photographers that the photograph should be taken by an impartial observer, but I found that it was more engaging to be subjective, to declare one's biases, and somehow that was a more truthful statement, because it didn't assume everyone had the same point of view. Most photographs have a story or at least a context, and so written texts became important to give the viewer an entre into the situation. Together, the works form a narrative, a memoir. My texts are very considered. This comes from a performance practice where a story is repeated, and over time the text is reduced and refined. I

like the pithiness of the end result. I think of my texts as poems complimenting the image.

I am a Chinese born into a predominantly Anglo Australian culture with which I identified, and gay in a predominantly heterosexual society. My story is how I came to terms with my otherness and how I used it as a theme of my art.

- William Yang

William Yang was Born in North Queensland in 1943, he changed his name to William Yang in 1983 and he is currently based in Sydney, Australia. He worked as a playwright from 1969 to 1974, and since then as a freelance photographer.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1977, Sydneyphiles, caused a sensation because of its frank depiction of the Sydney gay and party scene. Yang integrated his skills as a writer and a visual artist in 1989. He began to perform monologues with slide projection in the theatre. In addition to his famed monologues, William Yang has presented over twenty individual photography exhibitions across Asia, Australia, Europe and North America.

In 1993 Yang won the Higashikawa-cho International Photographic Festival award of International Photographer of the Year. In 1997 his exhibition Friends of Dorothy won the Outstanding Visual Arts Event award at the Sydney Gay and Lesbian Mardi Gras. In 1998 he was awarded an Honorary Doctorate of Letters from Queensland University for his services to photography. In 2007 he was awarded the H.C. Coombs Creative Arts Fellowship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In 2010 he was awarded a two year Australia Council Fellowship to make DVDs of his performance pieces at the University of NSW, where he is a visiting fellow.

His work has been collected by numerous institutions including the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Sydney; Higashigawa-cho Municipal Gallery, Jap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Sydney and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Canberra.

POLLY BORLANDfrom the series *Smudge*, 2010

Untitled V
Untitled VII
Untitled X
Untitled XIII
Untitled XIV
Untitled XV
Untitled XVII
Untitled XIX
Untitled XXII
Untitled XXIV

cromogenic print
 10 parts, 76 × 65 each

Courtesy of the artist and Murray White
 Room, Melbourne

MICHAEL COOKfrom the series *Civilised*, 2012

Civilised #1
Civilised #2
Civilised #4
Civilised #6
Civilised #7
Civilised #8
Civilised #10
Civilised #11
Civilised #13
Civilised #14

inkjet print on archival Hahnemuhle cotton
 paper
 10 parts, 100 × 87.5 each

Courtesy of the artist and Andrew Baker Art
 Dealer, Brisbane
 Private collection, Queensland, Australia

DESTINY DEACONfrom the series *Frieze frames*, 2011

Melbourne girls in their Marys, 2011
 80 × 94.5
Where the boys are, 2011
 80 × 101.5
Aunties keep a watch out, 2011
 49.5 × 28
Cousins, 2011
 60 × 35.5
Clinton, 2011
 80 × 21
Elia, 2011
 80 × 21
Great uncle and great nephew, 2011
 70 × 27
Janina, 2011
 49.5 × 30
Leilana, 2011
 59.5 × 36
Lovely hula hands, 2011
 21 × 94.5
Mother and child, 2011
 70 × 37
Brideshead, 2011
 15 × 28
Kim's foats, 2011
 30 × 28
Pregnant bride, 2011
 19.5 × 28.5
Two young Islander women from Melbourne, 2011
 21 × 42.5
Real Hair, 2011
 24 × 28
Uncle and nephew, 2011
 22 × 46.5

inkjet print on paper
 17 part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slyn Oxley9
 Gallery, Sydney

DESTINY DEACON & VIRGINIA FRASER

Contacts, 2011
 black and white digital video projection, silent
 from a black and white nitrate film by Henry
 W Mobsby for the Queens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1899 on Erub, Torres Strait,
 Darnley Islanders pay tribute to Hon. J.F.G,
 Foxton. Original footage held in the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Canberra
 2:46 minutes

Courtesy of the artists and Roslyn Oxley9
 Gallery, Sydney

PAUL KNIGHT

Untitled, 2010
 folded type C photograph
 85 × 90

Untitled, 2010
 folded type C photograph
 80 × 92

Untitled, 2010
 folded type C photograph
 81 × 91

Untitled, 2010
 folded type C photograph
 83 × 87

Courtesy of the artist and Neon Parc,
 Melbourne

TRACEY MOFFATTfrom the series *Plantation*, 2009

Plantation (Diptych No. 1)
Plantation (Diptych No. 2)
Plantation (Diptych No. 3)
Plantation (Diptych No. 7)
Plantation (Diptych No.10)
Plantation (Diptych No. 11)

digital print with archival pigments, InkAid,
 watercolour paint and archival
 glue on handmade Chautara Lokta paper
 6 diptychs, 46 × 50.5 each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slyn Oxley9
 Gallery, Sydney

Other, 2009

(Collaboration with Gary Hillberg)
 DVD
 7 minutes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slyn Oxley9
 Gallery, Sydney

POLIXENI PAPAPETROUfrom the series *The Ghillies*, 2013

Salt man
Desert man
Grasree man
Hattah man and Hattah woman
Magma man

pigment ink print
 5 parts, 120 × 120 each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ills Gallery, Sydney

TRENT PARKE

The Camera is God (street portrait series), 2013
 pigment print
 multiple parts, 80 × 60 each

*The Camera is God (street portrait series) - Book
 with diary excerpt*, 2013
 notebook
 31 × 23

Courtesy of the artist and Magnum photos,
 Stills Gallery, Sydney and Hugo Michell,
 Adelaide

PATRICK POUND

Untitled (writer's meeting), 2014

found photograph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ills Gallery,
 Melbourne

MARTIN SMITH

Father's mother, 2012
 pigment print on photo rag with released
 letters
 100 × 100

Mother's father, 2012
 pigment print on photo rag with released
 letters
 100 × 100

Brother's sister, 2012
 pigment print on photo rag with released
 letters
 100 × 100

Courtesy of the artist and Sophie Gannon
 Gallery, Melbourne

CHRISTIAN THOMPSONfrom the series *We bury our own*, 2012

Danger will come
Invaded dreams
Energy matter
Desert melon
Down under world
Three sisters
Lamenting the flowers
Forgiveness of land

type C photograph
 8 parts, 100 × 100 each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lery Gabrielle
 Pizzi, Melbourne

WILLIAM YANG

Self portrait #3, 1948/2007
 inkjet print
 59 × 42

Family at Dimbulah, 2008
 inkjet print
 37 × 50

William in scholar's costume, 1984/2007
 inkjet print
 79 × 52

The disguise, Beijing, 1989
 inkjet print
 40 × 26

Climbing Huang Shan, 2008
 inkjet print
 40 × 47

Family album, 2009 (eggs printed by Aaron Seeto)
 inkjet print
 27 × 40

Life lines, 2009
 inkjet print
 86 × 184

Self portrait #6, kissing Eric, 2010
 inkjet print
 40 × 60

Three epiphanies, 2012
 inkjet print
 35 × 130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ills Gallery, Sydney